

믿 지 실 음 혜 천	Buddhanara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송년 법회 및 송년 파티

12월 29일 기축년 정초 7일 기도 입재 (1월 4일 회향)

2009년 1월 3일 토요일 성도재일 철야 참선 정진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 6시

송년 법회 및 송년 파티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길 가운데 가장 수승한 길은 팔정도 이고,
진리 가운데 가장 수승한 진리는 사제 (四諦)이고,
자세(姿勢)중 가장 수승한 자세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람 가운데 가장 수승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러한 진리를 보는 사람이라네.

The best of the paths is the path of eight. The best of truths, the four sayings. The best of states, freedom from passions. The best of men, the one who see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불기 2552 년 무자년 동안거 결제: 전국 100 여 선원 ‘정진 돌입’

지난 12 일 불기 2552 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2200 여 명의 눈푸른 납자들이 전국 100 여 개 선원에서 일제히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결제하루전인 지난 11 일 저녁 각자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올린 수좌스님들은 결제일인 12 일 오전 각 선원별로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 등에게 결제법어를 청한 뒤 3 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는 결제법어를 통해 오조법연 선사와 납자의 문답을 일화로 소개하며 “선가의 대중장인 임제선사는 오역죄를 당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이렇게 좋은 오역죄를 지을 수만 있으면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는다”며 “오역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일이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래 오역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야 하는 오역죄인 것”이라고 전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법어 끄트머리에 “그런데 그 오역죄인이 우레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수행납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과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스님 등 각 총림 방장스님들도 결제일을 맞아 결제법어를 통해 수행납자들의 가행정진을 독려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하안거 때와 마찬가지로 ‘결계와 포살’ 제도를 시행해 본사별 결계신고와 함께 안거 기간 중 포살법회를 진행한다.

“로봇에 ‘불성없다’ 단정 못해”:해인승가대 보일스님 논문 ‘주목’

“연기 공 중도 관점에서 이해해야” ‘전국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인공지능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 전국 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해인사승가대학 대교반 보일스님은 ‘인공지능로봇의 불성연구-인간과 기계의 연기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유사(類似)인격체인 인공지능로봇의 불성을 연기, 공, 중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 인공지능로봇에 대해 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일스님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기계의 존재성이 객체에서 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류와 기계의 공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전제한 뒤 “어느 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말을 걸며 소통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과 관점, 사유의 방식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중도적 안목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기계의 연기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인공지능로봇의 정체성과 인간과의 연기성을 고찰하다보면 중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와 마주칠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의 인지능력을 완전히 모의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의 화두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의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로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문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학인논문 공모전의 금상에는 운문사승가대학 사집반 원효스님의 ‘불교의 사제상(師弟像) 고찰’이, 은상에는 동학사승가대학 사집반 아진스님의 ‘국제포교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연구-미주지역 동포들을 위한 포교실태를 중심으로’와 해인사승가대학 대교반 진휴스님의 ‘한국불교의 기복적 성경에 대한 고찰’ 등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상에는 봉녕사승가대학 사집반 정원스님의 ‘지눌 선사상의 이해 및 현대적 의의 고찰’과 운문사승가대학 사교반 진우스님의 ‘강원 생활과 청규정신의 고찰-운문사승가대학을 중심으로’, 동학사승가대학 대교반 윤호스님의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나타난 신중에 대한 고찰’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인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스님은 심사 총평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활동에 중점을 둔 응용불교학분야와 종교다원주의 국가에서의 포교방법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뤘다”면서 “원전에 근거한 논거를 보충한다면 보다 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수행, 현대인의 고민해결에 특효”:김성철 교수 불교심리치료학회서 주장

연기법, 사성제를 근본으로 한 불교수행이 우울증 등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심리치료를 넘어 종교적, 철학적 고민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지난 24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2008 년 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철 교수는 이날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재발방지법 등을 잘 알아야 하는데, 붓다는 중생의 병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현대 심리치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苦).집(集).멸(滅).도(道), 즉 사성제의 가르침을 질병의 치료과정에 비유하면서도 현대 정신의학의 심리치료와는 일부 선을 그었다. 그는 “사성제로 요약되는 불교 수행론과 심리치료는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은 같지만 최종목표는 다르다”면서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일반인 수준정도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지만 불교수행은 더 나아가 종교적, 철학적 고민에서조차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연기론에 바탕을 둔 인지치료 기법을 통해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행으로 연결돼야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체득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불교 유식학을 주목했다. 그는 “아공을 체득할 경우 아집(我執)이 야기한 번뇌장이 사라지고, 법공을 체득할 경우 법집(法執)이 야기한 소지장이 사라진다”면서 개념(法)을 재료로 삼아 우리의 사유가 만들어 낸 세계관과 인생관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나와 생명은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심리적 아픔’을 초래했던 종교적, 철학적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이것이 곧 불교적 인지치료의 궁극적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간화선 수행하면 심리치료 가능”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나 간화선 수행할 것 없이 모두 심리치료법이며, 간화선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치료적 효과가 나타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스님)가 지난 21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간화선의 지평확대를 위한 학술적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제 9 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에서 경북대 김보경 명예교수는 ‘간화선 수행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보경 교수는 “화두에만 몰입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심신적 요인들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배우게 된다는 점과 자신이 이미 부처라는 긍지를 갖고 부처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분한 마음으로 제거하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의 유지 등 간화선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자기 통제법이며 행동치료법에 속한다”며 간화선을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의 핵심 철학인 연기와 무아관은 학습 및 행동심리학의 철학적 배경과 다르지 않다”면서 “불교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결합은 평상심이 도(道)라는 선(禪)을 무지에서 오는 온갖 번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참 자기를 회복하고 이상적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크게 공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간화선과 초기불교의 여러 가지 대치법이 통합될 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치료 및 교육적 전략이 개발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준호 전임연구원은 ‘간화선과 위빠사나-교리적 연결고리를 위한 탐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화두선과 위빠사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행법이 아니며 양자간의 교리적인 연결 고리는 선정”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수행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표명되지만 선정 수행의 전제 없이도 또는 낮은

단계만으로도 열반·해탈이 가능하다는 주장 등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김영옥 책임연구원과 경북대 철학과 임승택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수, 박경탁신경정신과 박경탁 원장 등이 논평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종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간화선이 살아있는 수행법으로써 좀 더 보급될 수 있길 바라며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면서 “간화선이 보다 많은 사부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Opening the Winter Retreat : Dharma Talk to begin the Winter Retreat

Most Ven. Bupjeon's Speech to Begin the 2008 Winter Retreat
Jogye Order's Supreme Patriarch, Ven. Bupjeon gave the speech to officially open the winter retreat on November 12 (full moon day). In over 100 Seon temples throughout Korea , over 2200 practitioner monks and nuns began the winter retreat season. Just as in the summer retreat, there will be Uposatha Ceremonies throughout the winter retreat season. Following is the entire speech given by the most Ven. Bupjeon.

A monk asked Seon Master Ojo Bupyeon, “What is the work of Imje (Rinzai)’s followers?” The master replied, “The committer of the five sins hears the sound of thunder.”

The five sins of immediate retribution are: to kill one’s father, to severely harm one’s mother, to shed the blood of a Buddha, to cause a division in the Sangha, and to destroy Buddhist texts and statues. One will go to Avici Hell (worst of the hell realms) by committing any of these five sins. However, the great Seon patriarch Ven. Imje (Rinzai) newly adapted the five sins to make it his main practice.

“Father” is the father of ignorance. To kill one’s father is to be at peace wherever one goes, knowing that all that arises from the mind is the echo of emptiness.

“Mother” is the mother of desirous love. Even if desirous love arises in the mind, to know that all phenomena are without form, and be free of attachment is to severely harm one’s mother.

To shed the blood of a Buddha is to release all thoughts and hold on to nothing.

To cause a division within the Sangha is to know clearly that our thoughts and minds are bound by delusion. It is to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to do, since the mind is like space.

To destroy Buddhist texts and statues is to know that interdependence, mind, and dharma are empty, thus becoming one mind, untouched by all things.

If one commits the five sins, one will fall to the Avici Hells. However, Imje’s five sins is the path of realization. We must avoid the original five sins, but Imje’s five sins must be committed everyday, moment to moment.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e committer of the five sins hears the sound of thunder?”

“Heogh!” (This is a loud cry from the belly, which Seon masters use to awaken students to sudden realization.)

Do you understand?

A single bean pops out of the cooled ashes.

“美서 템플스테이 경험하세요”

미국 북가주 보리사(주지 형전스님)는 오는 12 월 26 일부터 2009 년 1 월 17 일까지 3 주간 1 회 영어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겨울방학을 맞아 마련된 영어 템플스테이는 초등학교 3 학년부터 중학교 2 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교 기초 교리 및 사찰 예절, 미국 내 사찰 순례 뿐 아니라 불자 가정을 방문하여 교포들의 미국생활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영화관람, 골프, 대학 및 관광지 견학 등 야외활동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미국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스님)는 휴식과 여행을 겸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매주 수요일 출발해 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사찰에 머무르면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동시에 체험하며 여행도 겸하게 된다.

무량사는 또 올해 동안거 기간 동안 수행정진에 참여할 재가불자도 모집하는 등 한국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가장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는 달라이 라마”[IHT]

서유럽인과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세계적 지도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8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IHT와 프랑스 뉴스 전문채널 '프랑스 24'의 의뢰로 지난 두 달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라이 라마는 다른 18명의 후보를 제치고 '가장 존경할만한 지도자'에 올랐다.

달라이 라마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였으며,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은 지도자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6개국 국민들의 고른 지지를 얻었으나, 달라이 라마와 함께 후보에 오른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와 영국·미국인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부터 59-73%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얻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녔으면서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에 뽑혔으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응답자의 30%만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경우 '존경할 만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들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데는 국가별로 이견이 없었다.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앞으로 두 달에 한번씩 세계적 지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가을이 주는 깨달음의 지혜

2008년 11월 5일 중앙일보 종교 칼럼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

여름내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형형 색색 단풍으로 곱게 치장을 하고는 내년 따뜻한 봄날 새싹으로 다시 와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 둘씩 길 떠날 차비들을 하고 있다.

11월에 접어들어 일교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낮의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사찰 뒷마당에 손 바닥만하게 가꾸어 놓은 텃밭엔 아직도 싱그러운 고추 나 상추도 보인다. 하지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곧 서리가 내린다 하여 가을 갈무리로 요즈음은 텃밭에서 하루를 보낸다. 사찰 텃밭에서 키워진 도라지나 고추 잎은 따서 반찬을 만들어 상에 올리면 일요일 정기 법회 때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 밥상이 넉넉해 질것이다라는 생각에 힘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고추 잎, 무말랭이, 무우청은 데치고 말려서 겨울 양식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나면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어 온다.

모든 만물이 동면의 깊은 잠을 자기 전에 찾아오는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떠난다. 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식뿐만 아니라 봄에 피는 꽃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형형 색색의 단풍도 선물해 주고 떠난다.

자연의 이치도 이렇진 데 우리네 인생살이는 어떠한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남아있는 후예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겨 주고 떠날 수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또한 평생동안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평생을 돌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후회 된다는 세가지가 있다 한다. 그것은 “좀더 베풀걸” “좀더 참을 걸” “좀더 즐길 걸” 이라 한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사람들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세가지 독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貪(탐하는 것), 瞋(성내는 것), 癡(어리석은 것) 이다.

남의 것을 탐하고 바라는 것은 본능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력에 의해서 정정 당당하게 얻어지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요행과 그 이상의 것까지도 바라고, 때로는 남을 해쳐 가면서 까지도 편법으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성을 내는 것은 감성적인 독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죽어서 갈 자신만의 화탕 지옥을 하나씩 만들어 진다 한다. 실체가 존재하지않는 성내는 마음은 개인간에는 싸움을, 집단과 집단간에는 차별을,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독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만 판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성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은 무지, 편견, 선입견, 오해, 이기심에서 나오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갈등 하게 만든다. 결국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는 실패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고 뒤늦은 후회를 가져온다.

세상사람 들이 임중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세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독을 제거하는 수행생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임중에 이르러서야 때 늦은 후회 않고 멋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탐하지 않고 베풀며 사는 것이 그 첫번째고 성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 그 두 번째이고, 어리석지 않고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알며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세 번째라 할 수 있다.

2008 년이 다 갈려면 아직도 12 달 중 2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아 더 늦기 전에 참회와 용서를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불자로서의 삶의 자세: 佛.法.僧 <삼보:三寶> 에 귀의하고 계율 지켜야

불자의 삶은 무종교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같기는 하지만 불자는 다른 종교의 앞에 서서 이끌고 빛을 비춰야 할 것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란 삼보(三寶), 즉 부처님(佛)과 가르침(法), 스님(僧)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삼보를 깨뜨리지 않는 마음을 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신도로서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삼보에 대한 믿음과 재가자로서의 계를 지키는 일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두텁고, 물러남이 없으면 기쁨은 자연히 따라 오르는 것이다. 이 경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빛을 인정하고 기쁨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 또 자비를 마음의 근본으로 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깨끗해진다.



이를 위해 불자는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염려해 스스로 불자임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경향이 종종 있다. 하지만 불자들은 백천만겁(百千萬劫)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해야 한다. 불자들은 불경 독송을 생활화해야 한다. 하루를 살아가며 차를 타고 있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등과 같이 틈나는 대로 불경 독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틈나는 시간 동안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며 참선, 염불, 108 배 등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셋째, 불자는 ‘인과의 법’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은 우리 생활을 이끄는 지표이다. 사람들은 모두 전생의 업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간다. 따라서 선인(善因)을 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인에는 반드시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인(惡人)에는 반드시 악과(惡果)가 따르는 법이다.

넷째, 불자는 보시(布施)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재보시, 법보시, 무외시 등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시를 행하고 남을 도왔다는 생각이 없도록 돕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자는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서는 계율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계율을 지킨다는 일 자체가 도덕적 생활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중국 대혜스님의 글을 모은 <서장>에서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을 찾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릇을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찾고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교신문 엮태규 기자가 쓴 글 발췌

마음 호흡의 공기인 언행 : 좋은 언행은 청정 세상의 밑거름

우리는 삼키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들어오고 쉼고 내보내야 한다. 음식과 공기가 그러하고, 삶과 살,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다. 삶은 저 부단한 교류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언뜻 삶이 먼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교류가 없다면 지금의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육체만 교류의 산물일까? 우리의 마음도 교류가 전제되지 않으면 육체의 교류도 없다. 만약 내 주변에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것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나는 살아 있으되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삶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주변과의 교류의 산물이다. 마음의 숨을 쉬지 않고는 즉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좋은 언행은 맑은 공기와 같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무심코 내뿜은 나의 말 한 마디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

나의 몸짓, 표정, 눈길도 마찬가지이다. 빛과 소리가 반사 반향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이, 나의 동작과 언어도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내가 상대의 기분을 1 할 상하게 했다면, 가중치가 붙은 반응은 나의 기분을 2 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반사작용은 연속적으로 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언행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면, 그 반향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연이어서 상대의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쪽으로 교류의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연말의 많은 송년회를 앞두고 “모임에 나갔을 때 피하고 싶은 인물 유형이 무엇이나?”의 설문으로 조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별 내용이 없는 말을 술주정하듯이 짓궂고 지겹게 되풀이하면서 간죽대는 형,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형, 자화자찬형, 아랫사람은 무시하고 윗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아부하는 형, 재력을 과시하는 형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저 유형 가운데서 간죽대거나 자화자찬하거나 재력을 과시하지 않기는 쉬울 것 같다. 아부하거나 직접적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불교의 이상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끌라내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 어렵다. 모인 사람들의 잘잘못을 비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어린 애기의 움직임에 무조건 귀엽게 보듯이,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는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를 닦는 사람은 항상 밖의 것에 핑계를 찾지 않고, 자기로부터 행복을 여는 길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남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말과 행동은 물론 뜻까지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옹화상 발원문 가운데,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내 이름”과 “내 모습”을 “내 말”과 “내 몸짓”으로 바꾸어도 좋으리라. 나옹화상은 만나는 사람마다 극락과 해탈의 세계를 선사하려는 큰 원을 세우지만, 우리는 최소한 접하는 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는 있으리라.

등산로에서 아버지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들을 만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보고 지나갔다. 나는 보통 가볍게 말을 걸지만, 아버지가 대면을 피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들이 “안녕하세요”라며 머리를 꾸벅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앞서 지나간 아버지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인사를 답아서 전하는 중이었다. 아들로 하여금 밝고 정겨운 세상을 만들도록 교육을 시키는 중이었다. 내 속에서는 저절로 축원이 떠올랐다. “저런 아이가 커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으로도 상대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다. 단지 두 손을 가위자로 모아서 아랫배를 가리는 시늉만 해 보라. 아름다운 경례의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가 될 것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12 월달 법회는 2008 년에 마지막 법회이므로 1 부는 법문 (주제: 중생들에게 돌리는 회향의 공덕), 2 부는 송년 파티를 준비 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12 월 21 일 셋째주 일요일에는 한국에서는 동지이고 미국은 처음 겨울이 시작되는 날 입니다. 이날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1 부 법회 후에 송년 잔치를 준비 했습니다.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2008 년 12 월 29 일 기도를 입재해서 기축년이 되는 2009 년 4 일 회향하는 정초 7 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2008 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신도님들 모두 힘들지만 기도와 정진의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힘으로 모든 위기들을 이겨 냈으면 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기도 동참비는 100 불 입니다. (한국에서는 10 만원 입니다).
- 음력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52 번째 맞이하는 성도제일 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도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철야 용맹 정진을 합니다. 참고로 성도제일은 음력 12 월 8 일 이므로 양력으로 2009 년 1 월 3 일 토요일 저녁 8 시에 정진을 시작 합니다.
- 11 월 13 일에 St. Louis 지역에 있는 Community alternatives Center 에서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오전 9 시 30 분에서 12 시까지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삶과 죽음”에 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그동안 불교사상에 대해 처음 접하는 지역 상담 및 사회복지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 월 1 일에는 선각 스님이 워싱턴 대학 사회복지 대학원 Spirituality & Social Work 클래스에서 불교적 사상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와 심리치료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교수들은 참선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부다나라 토요 참선 법회에 참석을 희망 했습니다. 모두 환영 합니다.

1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36 번 고흥후인 유연철 영가, 546 번 강릉후인 유중원, 547 번 계유생 전인자, 548 번 정유생 김동수, 549 번 병신생 유혜숙, 550 번 기미생 김근만, 551 번 계해생 김경목, 552 번 을미생 다보림 양영애, 553 번 정사생 신정현, 554 번 갑술생 조재복, 555 번 계사생 공덕해 김태희, 556 번 무진생 능인 신동윤, 557 번 갑자생 성불화 오점순.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11 월 부처님 봉안 불사 동참자: 병신생 유혜숙

11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계유생 전인자, 병신생 조문석, 경희 대학 한의학과.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